Youngeun News

동행

6월

2025년 46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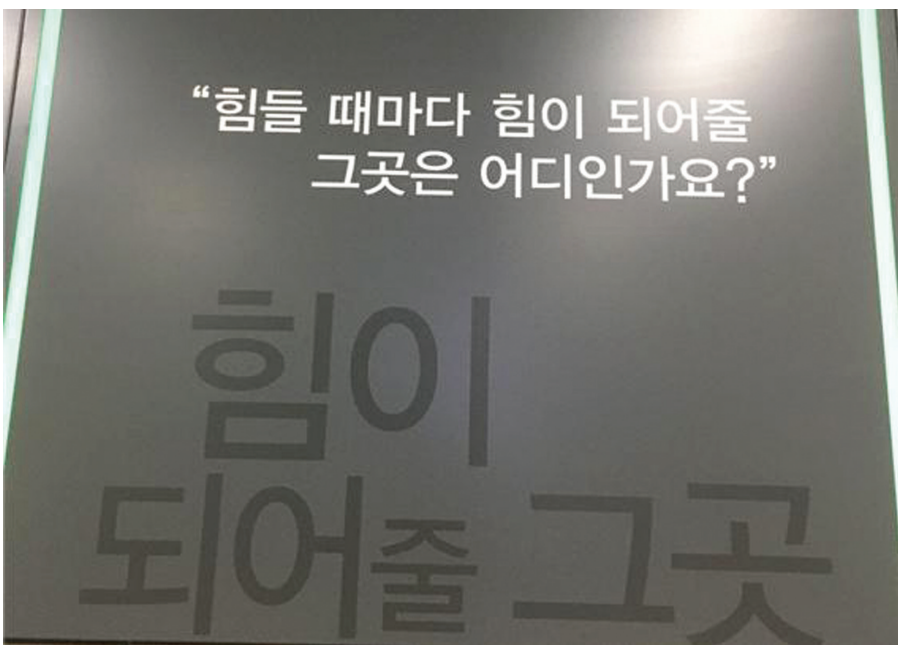
300 기도용사 서약식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color 2025 영은, 색을 입히다

“힘이 되어줄 그곳”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줄 그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글 · 사진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66호 / 2025. 6. 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 행 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 집 인 김석진 장로
편집차장 김창원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편 집 서선이 김경원B 윤정림
기 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 자 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힘이 되어줄 그곳"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교제의 정석, 우리는 하나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정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 이준희 목사

08 동행
예장유럽선교회 선교대회를 다녀와서 / 이승구 담임목사

10 웹진 동행
찾아가는 온 세대 예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피어난 화합의 하루 / 전용주 안수집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발전기금 전달 / 김명희 기자

14 영은 소식
영은교회 부활절 기쁨의 커피나눔 / 신요한 목사
고등부, 찾아가는 온 세대 예배를 마치고 /
윤미라(고등부 찬양대 지휘자)
2025 어울림 가족캠프 / 김재원 집사
교회학교 전도 디다케 / 이에리야 목사
2025 권찰회 야외예배 / 김명희 기자
故 김춘근 은퇴장로 교회장
故 최금숙 은퇴권사 교회장
감사와 은혜가 가득했던 은퇴장로회 야외예배 / 이택원 은퇴장로

25 슬기로운 교회생활
추모예식 / 신요한 목사

26 소감문
기도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 임현숙 집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 김지미 집사

28 교회안내
2025 부흥사경회

2025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의 정석, 우리는 하나

(창세기 1 : 26~28절)

글 | 이승구 담임목사

■ 교제의 정석, 코이노니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교제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화된 현대 사회에서 깊이 있는 인간 관계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삶은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코이노니아'가 퇴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조 이야기에는 '코이노니아'에 관한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여기서 반복되는 '우리'는 복수의 인격체가 합의하는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이미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삼위일체를 닮은 삶의 방식을 갖게 되어 '관계의 삼위일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너'가 삼위일체 관계 속에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를 무너뜨리는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말을 살짝 바꾸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3:4)"고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하고 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입니다. 이 불신이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깨졌습니다. 인간 사이의 코이노니아 역시 깨졌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하와를 1인칭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3:12)"라고 변명할 때에는 '그'라는 3인칭을 사용합니다. 타락 이전에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했던 한 몸 같은 코이노니아가 깨지는 장면입니다.

■ 교회=코이노니아

깨어진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도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

다. 십자가는 위아래와 좌우를 향하는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끊어진 코이노니아를 이어주는 다리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코이노니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엡 2:14~18)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나와 너도 하나 되고 하나님과도 하나 되게 하는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온전히 구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타락으로 깨어진 코이노니아를 다시 회복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모여 한 몸으로 살아가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 (고전12:26)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되고, 지체의 아픔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 일체성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중심 주제이자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 지향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 됨' 의 모델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의 관계를 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다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상호내재입니다. 서로 구별되지만 동시에 깊이 상관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두 존재이지만 또한 하나인 존재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의 하나 됨 또한 이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개개인이 독립적인 인격체이지만 동시에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 됨' 은 개별성과 통일성이 완전한 형태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일체성' 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행 2:46)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행 4:32)

'마음을 같이 하여' '한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유한 '개별성'을 가지면서도 교회로 모일 때에는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성'을 통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협동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할 공동체에 땅 분배와 관련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지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미디안의 다섯 왕의 연합 세력을 무찌른 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두 지파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민 32:5)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은 '언약의 땅' 밖이었습니다. 모세가 두 지파를 책망하자, 르우벤과 갓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공동체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깨닫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족들 신변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대한 '선조치'를 하고 나서 '후합류' 할 것이며, 좋은 목초지를 먼저 배당 받은 만큼 전쟁에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만 남겠다'고 하지 않고 '우리도 가겠다'고 합니다.

공동체는 '우리만'이라는 이기적 행위로 구성된 곳이 아닙니다. '우리만'이라는 '이기적 행위'는 공동체를 뒤흔들고, 공동체 지체들을 낙심케 하며, 분열을 가져옵니다. '우리만'이라는 '이기적 행위'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흐리게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우리도'라는 협동심이 있어야 합니다. 협동심을 통해 하나 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교제의 정석, 우리는 하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구현하도록 부르신 곳이 교회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각자 개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성'**으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만'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도'라는 **'협동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체성과 협동심을 통해 우리 교회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글 | **이준희** 목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뜻한다. 그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는 결코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영역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

정치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법과 제도, 사회의 질서와 평화,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고,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가지며, 바른 정책과 지도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 중 하나다.

하지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생각은 보수, 진보, 중립 등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신앙적 배경, 가치관, 경험에 따라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정죄하거나 배척하기보다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지도자,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롬 13:1)고 말씀하며,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한다(딤전 2:1-2).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사회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대하는 자세는 무관심도, 극단적 대립도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도는 필수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와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이다.

[동행 : 유럽선교대회]

예장유럽선교회 선교대회를 다녀와서

이승구 담임목사

예장유럽선교회 선교대회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일 년에 한 번 모여 수련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이 선교대회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여 이원적으로 운영됩니다. 2년 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작년에는 불가리아 소피아, 올해는 독일의 오버베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5월에 개최된 선교대회에는 각 나라에서 150여 명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선교대회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스스로 마련할 수가 없어서 후원교회가 필요합니다.

■ "영은교회가 우리 선교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유럽선교대회 총회파송 선교사 파송식을 마치고

'2025년 선교대회를 위해 우리 영은교회는 1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앞두고 환율이 많이 올라 걱정되었지만, 당회에서 협의 후 환율 인상분까지 고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세심한 배려를 선교사님들이 전해 듣고 무척 감사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이런 행사에 우리 교회가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서 저 또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대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가 "영은교회가 우리 선교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영은교회 후원이 있어서 우리가 선교대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감사였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들을 때마다 많이 부끄러웠지만, 저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한, 저도 강사로서 선교대회에 참여한 덕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선교사님들에 대한 파송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선교대회 기간 중에 총회선교사훈련을 마치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총회 파송을 받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이 뒤늦게 훈련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대회에서 파송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 교육을 받지 못해 뒤늦게 파송 받는 분들이었지만, 헌신에 먼저 집중하신 귀한 마음에 감동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기정 선교사(양소희)님의 파송식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또한, 제가 강사로 참여했지만 여러 선교사님의 나눔을 들으며 참 감사했습니다. 30년 이상 선교지를 섬겨오신 분들이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명을 다하신 과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살아 있는 간증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민이 다르지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세대들의 무대가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무대

마지막으로 다음세대들이 준비한 무대가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아장아장 걷는 아기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세대들의 특송 순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뻐 뛰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참석자 모두 넘치는 감격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로지 부모님의 선택과 결정으로 먼 이국땅에 와서 생활한 다음 세대들은 한국에 있었더라면 겪지 않았을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에 처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얼굴로 밝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청년부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를 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고백한다는 가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저 또한 새로운 선교의 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돌아온 선교대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월 4일 어린이 주일에 교육2부에서는 믿음의 선배와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는 〈찾아가는 온 세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세대를 넘어 믿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권사회, 〈찾아가는 온 세대 예배〉에 참여

초등부와 권사님들

5월 4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는 〈찾아가는 온 세대 예배〉를 기획하였다. 이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각각 교회학교 예배에 참여하였다. 장로님들은 고등부, 안수집사님들은 유아부를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렸다. 권사님들은 꿈자람부와 유년부, 초등부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와 성경봉독을 담당하였고, 찬양도 부르며 예배드렸다.

권사회가 그동안 교육부를 위해 기도는 했었지만, 이번 〈온 세대 예배〉를 통해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교육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고충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예배를 함께 드린 권사님들은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글 | **김길자** 권사

은퇴안수집사님들과 함께 한 온 세대 예배

유치부에는 최윤호 장로님과 은퇴안수집사님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격려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했다.

장로님과 은퇴 안수 집사님들은 유치부 자녀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주시고, 특별 찬양도 해주셨다. 또한, 인형극에도 함께 참여하여 모세와 하나님 역할을 맡아 생동감 있게 연기해주심으로 성경의 메시지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더 잘 전달될 수 있었다. 함께함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로운 순간이었다.

이번 〈찾아가는 온 세대 예배〉는 단순한 한 주의 행사가 아니라, 유치부 어린이들부터 교사들, 그리고 은퇴안수 집사님들까지 모든 세대가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어린 아이부터 장년, 어르신까지 한자리에서 믿음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다음 세대를 향한 공동체의 책임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글 | **서미영** 집사(유치부 부장)

꿈자람부 예배에 참석하고 느낀 감사와 감동

5월 4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권사회는 〈찾아가는 온 세대 예배〉를 위해 꿈자람부 예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된 권사들이 손자와 손녀, 우리의 다음세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꿈자람부 예배를 기쁨으로 나가고 있는 손녀 이나(초5)와 이라(초2)가 있기에 평소 말로만 듣고 궁금했던 꿈자람부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공동체에서 적응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한 꿈자람부 어린이들

이번 예배를 통해 우리 손주 세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할머니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기도하고 응원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했고, 꿈자람부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글 | **조선옥** 권사

하나님의 은혜 아래 피어난 화합의 하루
– 제25회 영등포노회장기 체육대회를 마치고 –

글 | **전용주** 안수집사

5월 17일 토요일, 국회둔치운동장에서 제25회 영등포노회장기 체육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전날 많은 비가 내려 걱정했지만, 대회 당일은 맑은 하늘이 펼쳐져 감사한 마음으로 경기장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작년 대회가 빗속에서 진행되며 수중전으로 기억되었던 만큼, 이번 대회에서 모든 경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영등포노회 내 14개 교회가 참여했으며, 미니축구, 족구, 배구, 릴레이, 투호, 훌라후프 릴레이, 왕제기차기까지 총 7개 종목에서 뜨거운 열정이 빛났습니다. 양평동교회 크루오난타팀의 신나는 공연으로 시작된 개회식은, 우리 영은교회가 지난 대회의 우승기를 정중히 반환하며 의미 깊게 열렸습니다. 이기승 집사님과 구현진 집사님의 선수 선서가 더해져, 모든 이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개회예배 후 이어진 예선 경기에서는 우리 교회가 좋은 성적을 거두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어르신들의 포크댄스 공연이 이어졌는데, 그 따뜻한 모습은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오후에 펼쳐진 본선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투호 종목에서 담임목사님의 빛나는 활약으로 1등을 차지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종합 순위는 양평동교회가 1등, 도림교회가 2등, 우리 영은교회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우승했던 터라 아쉬움도 있었지만, 승부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임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경품 추첨과 폐회식 시간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들이 하나 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경쟁보다 화합을, 승리보다 사랑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른 새벽부터 나와 행사를 준비하고, 음식과 진행, 응원까지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모든 회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발전기금 전달

예배 후 김운용 목사(중앙)와 영은교회 목회자 및 장로

4월 27일 주일 2~4부 예배 시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김운용 목사가 "하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운용 목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경험한 부활의 은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부활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했다.

말씀 선포 후,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위한 발전기금 1천만원을 영은교회 당회 서기인 김영일 장로가 교회를 대표해 총장 김운용 목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전 교인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마련한 부활절 헌금의 일부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신실한 일꾼 양성과 신학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 교회는 2024년 10월 20일 이승구 담임목사와 장로 8명이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방문해 「영은교회 북한선교 장학금」 약정식을 가진 바 있다. 장학금 약정서는 영은교회에서 북한선교를 위하여 장신대에 재학 중인 북한 이탈주민 학생이 신학 교육(학업과 사역)에 전념하여 신실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회는 매년 1천만원을 2024년 1학기~2033년 2학기까지 10년간 제공하기로 하였다.

4월 27일 주일, 김운용 총장에게 전달한 장신대 발전기금 1천만원은 「영은교회 북한선교 장학금」과는 별도로 우리 교회가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교육사업을 위해 2025년도에 책정한 특별 지원금이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장로회신학대학교를 꾸준히 후원해 왔다. 이승구 담임목사와 교회를 통해 총 7,900만원의 발전기금이 지원됐다. 교회는 앞으로도 신학교를 위한 정기적 후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글 : 김명희 기자〉

[부활절 커피 향기]

영은교회 부활절 기쁨의 커피나눔

글 | **신요한** 목사

영은교회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지역사회와 함께 기뻐하고자 주변의 직장 근처의 카페에서 커피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4개 지역 카페, 브링미커피, 더착한커피, 커피사피엔스, 메가커피와 협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선결제 방식으로 먼저 후원금을 지급하고 부활주일 주간인 4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하루에 한 카페씩 교회 주변의 직장인들과 주민들에게 약 500여 잔의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커피나눔 행사는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계속 진행되었고, 주변의 카페에 도움을 주고 직장인과 시민들에게도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직장인과 사람들이 카페에 오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커피를 받아가셨고, 예수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카페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셔서 교회와 주변 상권이 서로 '윈윈' 하게 되는 멋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은교회와 기독교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교회를 친근하게 소개하는 아주 기발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영은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색을 입힐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찾아가는 온 세대 예배를 마치고

글 | **윤미라** (고등부 찬양대 지휘자)

온 세대 예배에서 고등부 찬양대와 장로님들이 함께 찬양

5월 4일 주일은 〈찾아가는 온 세대 예배〉로, 우리 고등부는 영은교회를 위해 매사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신앙의 최고 선배님이신 장로님들과 찬양을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었다.

이른 아침 흰색 상의와 청바지 드레스 코드를 멋스럽게 맞춰 입으신 장로님들께서 8층 찬양대실로 와 주셨다. 한 달 전쯤 고등부 부장 박애리 집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함께 부를 찬양곡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했다. 장로님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 고등부 찬양대원에게는 약간은 낯설 법도 한 〈실로암〉이 순간 번뜩하고 떠올라 찬양곡으로 정하게 되었다.

주일 오전 8시, 호흡 연습을 시작으로 3층 비전홀에서 장로님들과 찬양대, 찬양팀과 함께하는 연합 찬양대의 최종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어색함과 긴장감 속에 시작된 우리의 찬양은 서로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어느덧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의 어색함을 뒤로한 채 함께 손뼉을 치고 흥겨운 율동을 하며 즐거운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오후에 찬양대와 소감을 나눌 때 모두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말을 했다.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내년에도 이러한 시간이 계속 되길 바란다.

[어울림 캠프]

2025 어울림 가족캠프
함께함, 실천함 – 행복으로 물들다

글 | **김재원** 집사

가정의 달을 맞아 영은교회는 5월 5일~6일까지 원주 힐링캠프에서 어울림 가족캠프를 개최하였다. 스텝 포함 15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캠프는 가정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사랑과 회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5일 오전,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함, 행복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여는 예배를 드리며 정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캠프의 문을 열었다. 이어 오리엔테이션과 점심 후에는 '어울림마당'이라 이름 붙인 소규모 운동회를 통해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교제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바베큐파티로 가족 간의 교제를 나누었고, 찬양과 간증집회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특히 가족 간 사랑과 헌신을 나누는 세족식은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고, 자유시간과 함께 첫날을 마무리했다.

6일 아침에는 부부를 위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자녀의 심리를 이해하며 가정을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요한1서 3장 18절 "말씀 실천함, 행복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닫는 예배를 드리며 "행동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캠프를 마무리하였다.

짧지만 진한 감동이 담긴 이번 캠프를 통해 주 안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특별히 이번 캠프를 위해 앞장서 주신 정성훈 목사님과 헌신해 주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에 이번 캠프가 더욱 풍성하게 채워졌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 위에 큰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린다. 동역

■ 어울림마당 : 코너활동

1초 간주 듣고 가수&제목 맞추기(춤까지)

엄마 신발 던지기

풍선 기둥 만들기

■ 부부강의

강사 : 김정수 목사 / 아빠 위한 특강

강사 : 김규리 목사 / 엄마 위한 특강

■ 바베큐파티

영혼 구원

영은교회 유아부

전도 디다케

글 | **이에리야** 목사

교회학교의 '전도 디다케'는 202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도 디다케'란, '전도 사명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하며, 이때의 '디다케'는 헬라어로 '가르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곧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태복음 28:19-20)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입니다.

교회학교는 이 지상명령의 의미를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와 각 가정의 부모님들까지 연계하여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도 디다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사명을 실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총 9개 부서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전도 교육을 진행하며, 각 부서의 예배와 공과공부, 찬양, 활동 속에서 전도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합니다.

각 반과 부서, 그리고 연계된 가정은 전도할 대상을 직접 정하고, 그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전도 디다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도의 과정'에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전도의 여정 속에서 신앙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로 중보하며, 마음에 품은 영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도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되어 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온전히 응답하고자 '전도 디다케'를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전도축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등 주요 사역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됩니다.

아래에는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담아 힘써 사역하는 부서들 가운데, '유아부'의 전도 디다케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5년 유아부 전도 디다케〉

1. 유아부 전도 디다케 주제

"우리는 기도로 물들이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으로 물들이게 하자"

2. 목적

1) 유아들이 기도의 색을 입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실천

2) 전도 대상자 친구들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예수님으로 물들도록 인도

3. 일정

1) 기간 : 4/13(주)~7/20(주) 여름성경학교까지

2) 장소 : 영은교회 유아부실 및 체육관

4. 전도 교육 핵심

1)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 전도 대상자 정하고 매일 기도

2) 예수님의 마음 전하기 – 초대장, 전도카드, 선물 전달

3) 함께 물들기– 예배, 찬양, 활동을 통한 체험

5. 주요 프로그램 요약

주일	내용	설명
4/13	전도디다케 홍보	전도 대상자 정하기
4/20	전도교육	전도 기도표 배포, 손가락 기도 연계
4/27	초대장 1차	어린이주일 초대장 전달
5/4	어린이주일	대그룹 예배 및 놀이 중심 활동
5/11	어버이주일	전도 대상자 위한 전체 기도
5/18	전도교육	전도선물 만들기
5/25	편지쓰기	친구에게 편지 및 선물 전달
6/1	전도교육	다함께 기도
6/8	초대장 2차	부모님 초청 미니올림픽 초대장 배포
6/15	전도디다케 축제	미니올림픽, 예배, 부모님 동반 행사
6/22~29	마무리 전도기도	전체 기도회 중심 마무리
7/5	초대장 3차	여름성경학교 초대장 배포
7/17~20	여름성경학교	전도 대상자와 함께하는 복음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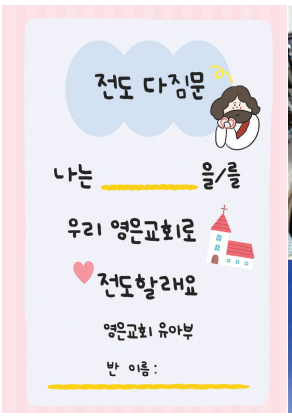
6. 유아부 전도 디다케 기획 의의

1) 기도와 공동체 활동을 통한 전도교육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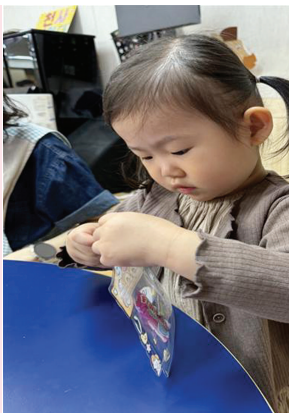
2)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영적 형성 프로그램

3) 전도 대상자의 부모까지 참여 유도한 통합적 접근

4/20 전도교육– 일주일 전도를 위한 기도



4/27 전도 대상자 정하기



5/18 전도 선물 만들기

유아부의 전도 디다케의 구체적인 내용처럼, 교회학교 모든 부서가 주님의 전도에 대한 지상명령을 귀하게 여기며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전도의 과정을 중시하며 신앙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전도에 임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학교 전도 디다케를 응원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참

2025 권찰회 야외예배

– 강화도 선교역사 순례 –

5월 16일(금)에 〈2025년 권찰회 야외예배〉가 강화도에서 있었다. 영은교회 6개 교구의 지역장들과 부지역장들, 반장들, 구역장들, 권찰들이 참여했으며, 이승구 담임목사님과 각 교구의 목사님들을 비롯해 총 147명이 함께 했다. 이번 권찰회 야외예배는 〈강화도 선교역사 순례〉란 주제로 진행됐다.

강화 성공회 온수리성당(성 베드로성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 기념

2025년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반도에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미국 북장로회 소속 언더우드 선교사와 북감리회에서 파송된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제물포항에 도착했다. 이후 이들의 뒤를 이어서 많은 선교사가 한반도 땅을 밟았다. 선교사들은 인천 다음으로 강화도를 중요한 선교지로 삼았다. 강화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강화도는 자연스럽게 한양을 이어주는 선교의 교두보가 됐다. 강화도에 들어온 복음이 평양으로, 한양으로, 조선 팔도로 뻗어 나갔다.

강화도는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1900년대 초 강화도의 개신교인 수가 700~800명에 달할 정도였다.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회가 강화도를 신앙의 터전으로 바꿔놓았다. 오늘날 강화도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이는 강화도에 오래전에 뿌리내린 기독교 신앙에서 연유할 것이다.

■ 권찰회, 강화도 선교현장 탐방

영은교회 권찰회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 기념의 해를 맞아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의 현장인 강화도를 탐방했다. 강화도에 많은 선교 유적지 중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과 〈강화 성공회 온수리성당〉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온수리성당은 1906년에 건립된 대한성공회 소속의 한옥 성당(성 안드레성당)으로 우리나라 초기 서양 기독교 교회 양식의 건물이다. 이 한옥 성당은 2003년에 인천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됐다. 한옥 성당 옆에 2004년에 새로이 축성된 성 베드로성당이 있다. 이곳에서 권찰회 예배를 드렸다. 신축 성당은 모자이크로 제작된 예수상과 베드로의 일대기를 표현한 다양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이다.

예배에서 이승구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창 41:42, 계 19:8)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입혀 준 옷이 세마포 옷이었고(창 41:42), 그가 죽었을 때 입은 옷도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계 19:8). 권찰회 야외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올해 교회 표어에 맞춰 다양한 색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입은 옷이 세마포 옷이 되길 바랍니다. 각자 입은 옷의 색깔에 따라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옷을 입어 예수로 물들어 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기념관 로비에서 목사님의 해설

이승구 목사님, 강화 최초의 교회종 타종

■ 조양방직 갤러리 카페에서 친교

예배를 마치고 수라정에서 한정식 식사를 한 후 조양방직 갤러리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먹으며 교구별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조양방직은 1933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의 인천 강화 방직공장으로 현재는 한국문화의 옛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공장형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카페 곳곳마다 알록달록 옷을 입은 영은의 가족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권찰회는 〈영은, 색을 입히다(color)〉란 교회 표어에 맞춰 6개 교구가 6개 색깔의 상의를 입고 각자 신앙의 색을 표현해 봤다. 빨강은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양육/교육, 노랑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봉사와 교제, 파랑은 바다 및 하늘 같은 넓은 마음의 전도와 선교를 상징한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한반도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같이 권찰회도 열정과 기쁨, 넓은 마음으로 다시 맞는 선교 140년의 주역이 되길 기대해 본다.

〈글 : 김명희 기자〉

조양방직 갤러리 카페에서 이승구 담임목사님과 6개 교구 목사님들

고(故) 김춘근 은퇴장로 교회장(敎會葬)

지난 5월 13일 화요일 고(故) 김춘근 은퇴장로의 교회장(敎會葬)이 있었다. 고(故) 김춘근 은퇴장로는 1938년 서울 마포에서 출생하였으며 1979년 영은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였으며, 1990년 집사 안수를, 1991년 장로 장립을 받았고, 지난 2008년 장로직에서 은퇴했다. 고(故) 김춘근 은퇴장로는 송옥순 은퇴권사와의 사이에 병대, 선옥, 선미 1남 2녀가 있다.

다음은 이정규 은퇴장로의 조사이다.

조사 (弔辭)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춘근 장로님!

장로님은 1990년 4월 22일에 안수집사가 되셨고, 안수 1년 만에 바로 장로에 임직 하시는 기록을 남기시며, 여러 부서에서 자상하고 올곧은 봉사로 17년 동안 일하시다가 2008년 12월 28일 은퇴하실 때까지 영은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시고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조용히 지켜보시며 조언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시고, 항상 환한 미소와 다정다감한 표정으로 말씀하시고, 충고와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들을 잘 섬기셨습니다.

장로님은 두 번의 큰 병환에도 믿음으로 극복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으로 건강을 찾으시고 잘 지내시며 건강하다고 자랑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지키라고 충고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도 곧 우리의 곁으로 오시겠지 하며 기대를 했는데 끝내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안타깝습니다. 한결같은 믿음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성품, 모든 일에 정도가 있으시고 친화력이 있으신 그 위엄, 교회 내의 모든 업무를 깔끔하게 교통 정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장로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권사님과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아쉽고, 보고 싶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명쾌히 조언해 주셨던 장로님이 더욱 생각날 것입니다. 자녀분들은 장로님의 빈자리, 특히 신앙의 빈자리를 잘 이어받아 아버님, 할아버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업적을 높이 받들어서 더욱 빛내어 주시기를 바라며, 서로 우애하며, 훌륭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후배 교우들은 장로님의 헌신적이고 자상하시고 고귀한 믿음의 신앙을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본으로 삼고 전진하겠습니다.

장로님, 저희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장로님의 헌신과 사랑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심을 지켜보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며 조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은퇴장로 이정규

고(故) 최금숙 은퇴권사 교회장(敎會葬)

지난 5월 20일 화요일 고(故) 최금숙 은퇴권사의 교회장(敎會葬)이 있었다. 고(故) 최금숙 은퇴권사는 1948년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출신으로 1972년 구본환 은퇴장로와 결혼하였으며 1975년 영은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였으며, 2007년 영은교회 권사로 임직받으신 후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셨다. 고(故) 최금숙 은퇴권사는 구본환 은퇴장로와의 사이에 딸 구현희, 구현진, 구현옥 3녀가 있다.

다음은 곽한희 은퇴권사의 조사이다.

조사 (弔辭)

사랑하는 故 최금숙 은퇴권사님!

권사님은 2007년 권사로 임직하시고, 2019년 은퇴하실 때까지 영은교회를 내 몸과 같이 아끼며 사랑과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권사님은 늘 영은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신앙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은 오랜 투병 생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구본환 장로님께서도 수술 후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중에도 권사님을 극진히 간호하시며 마지막까지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권사님! 이제 권사님의 육신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이제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고 계실 권사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품에 품으시고 위로와 기쁨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교사, 찬양대, 혼례부. 많은 부서에서 믿음으로 영은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권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과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권사님.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평안히 안식하시고 우리도 머지않아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사님 천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권사님 사랑합니다.

2025년 5월 20일

은퇴권사 곽한희

감사와 은혜가 가득했던 은퇴장로회 야외예배

글 | **이택원** 은퇴장로

지난 5월 15일(목), 푸르른 신록으로 봄기운이 가득한 날, 원로 · 은퇴 장로회가 이승구 담임목사님과 함께 예당호로 야외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예당호로 가는 도중에 예산의 유명한 식당인 할머니 장터국밥 집에서 맛있게 점심 식사한 후, 인근에 있는 예산상설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백종원 씨가 기획하여 시장을 재정비하였다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 북적거리는 것을 보면서 어릴 적 보았던 시골 장터의 정겨운 옛 정취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당호에 도착하니까 그곳은 가없이 넓은 호수가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예당호의 명물인 출렁다리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걸었고, 모노레일을 타고서 오르락내리락 스릴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 사정이 생겨 일정을 바꾸어 예수향남교회를 들렀는데, 그것이 예상치 못한 감동과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예수향남교회가 있는 그곳은 과거 우리 교회 묘지였던 '향남동산' 자리였었는데, '설악동산'으로 묘지를 이전하면서 매각했던 곳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묻혔던 그곳에 이렇게 큰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과거의 터전 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꽃피우고 있음을 목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행

예수향남교회(대안학교와 함께 사용)

추모예식

글 | 신요한 목사

추모예식이란

'추모' 라는 말은 '죽은 이를 그리며 생각함'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인을 기념하여 애도하고 추모하는 식을 추모예식이라고 합니다. 추모예식에는 고인의 믿음의 발자취를 더듬고, 그의 유지를 회상하는 가운데 큰 교훈을 받고 새로운 결심이 유족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족과 친족 및 친지들 간에 화목과 우의를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추모예식 지침

추모예식을 진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이 별세한 날에 맞추어 하는 것이 좋고, 시간과 장소는 가족의 합의하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모일이 주일과 겹치면 전날이나 다음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참석하는 대상의 범위는 직계에 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모예식은 고인의 자녀 생존 시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인의 가까운 친척들이나 친지들에게 추모예식이 있음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5. 고인의 사진과 신앙적 유품(성경, 찬송)과 약력을 준비하고, 생전에 녹음해 놓은 육성이나 녹화해 둔 것이 있으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식전을 꾸며 놓을 경우, 상 위에 사진을 놓고 꽃으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7. 음식을 준비하되 진상(상차림)해서는 안 되며, 추모예식 후에 나누도록 함이 좋습니다.

추모예식은 친지들이 모여서 그의 과거를 추모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부모의 과거를 돌아보기 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모예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참고하여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모예식 순서(예시)

예식사		집례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485장	다같이
기도		맡은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14:1~6	맡은이
권면과 위로		맡은이
약력 또는 추모사		맡은이
찬송	고인이 좋아하던 찬송	다같이
축도		목사

기도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글 | **임현숙** 집사
중보기도자학교 7기 훈련생

'중보기도자학교' 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에 처음에는 등록을 망설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조차 아까울 만큼 귀하고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막연했던 중보기도의 개념이 선명해졌고,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지 '더 깊은 기도'를 바라고 찾아왔던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도의 원리와 방향성을 배우며 기도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보기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동행하는 '사랑의 행위'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삶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곧 내 삶의 강력한 무기임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배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익혀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는 시간마다, 기도가 단지 개인의 간구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일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보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 안에 울려 퍼지는 강력한 기도의 힘이었고, 제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온유한 인상으로 기억되던 전도사님의 또렷하고 힘 있는 기도는 매 순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음성 속에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진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기에 더욱 마음에 와닿았고, 기도에 담긴 진정성과 영적 권위를 체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강의 후 조별로 나눴던 식사와 티타임이었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의 삶과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받는 따뜻한 자리였고, 같은 마음으로 배우는 또래들과의 만남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교제란 무엇인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중보기도자학교 훈련은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보는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을 발판 삼아, 더 깊이 있는 중보기도자로 성장해가고 싶습니다.

처음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글 | **김지미** 집사
중보기도자학교 7기 훈련생

병으로 오랜 시간 투병할 때, 영은의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보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저 또한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보기도자학교 6기에 신청했지만,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눈이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꾸준히 안과 치료를 받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걷기와 근력 운동도 했지만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아 아쉽게도 신청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7기에 신청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중보기도자학교 이론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중보기도자학교를 통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선택이 아닌,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임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이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실습 시간은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때 느꼈던 위로와 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제는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보기도자학교에서 함께 한 팀원들과의 교제는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차를 나누며 쌓인 따뜻한 추억들은 제 마음에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매일 기도문을 작성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3일째부터는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31일 동안의 기도 연습이 끝나더라도, 매일 기도일기를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중보기도자학교를 시작하고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겸손하게, 응답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신 영은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 사 허남기
담 임 목 사 이승구
부 목 사 최광주 이준희 이에리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 육 목 사 전수현
전 도 사 장미애 김영락 김찬영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황예찬 손예지
정희수
파송선교사 구용회 백현이
협 동 목 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